2026년 11월 11일 공보 2026-11-14호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11월 11일 14:0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한국은행, 2026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

□ 한국은행은 11월 11일(수)「디지털 금융 시대의 지급결제인프라 혁신과 정책 과제」를 주제로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2026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

- ㅇ 개최 일시 : 2026년 11월 11일(수), 14:00 ~ 17:40
- ㅇ 개최 방식 : 대면 컨퍼런스/온라인 중계
  (유튜브 생중계 : https://www.youtube.com/theBankofKoreakr)
- ㅇ 주요 내용 : ①자산토큰화에 대응한 결제서비스의 미래, ②글로벌 국가간 지급 개선 동향과 시사점, ③소액지급시스템의 혁신과 미래 과제
- ㅇ 발표자 및 토론자 : 외국 중앙은행, 한국은행, 학계, 유관기관 등

□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

문의처 :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팀장 강득록, 과장 이정인
Tel : (02) 750-6612, 6646 Fax : (02) 750-6658 E-mail : bokpayre@bok.or.kr
공보관 : Tel (02) 759-4023, 4199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bok.or.kr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<붙임>

2026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

□ 한국은행은 11월 11일(수) 「디지털 금융 시대의 지급결제인프라 혁신과 정책과제」를 주제로 해외 중앙은행 및 민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**2026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**를 **대면 컨퍼런스/온라인 중계 방식***으로 개최

* 발표자 및 토론자가 현장에서 대면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(https://www.youtube.com/theBankofKoreakr)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

□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속에서 지급결제인프라(시스템)를 개선하려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,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급결제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

□ (**제1세션**) **"자산토큰화에 대응한 결제서비스의 미래"**를 주제로 영란은행 안드레이 푸스텔니코프(Andrei Pustelnikov) 팀장이 영란은행이 추진 중인 결제혁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험 등에 대해 발표

- 지급결제 기술의 혁신 가운데서도 **중앙은행 화폐**(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)는 결제 안전성(safety), 결제 완결성(finality), 화폐 단일성(singleness)을 보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함

- 이에 영란은행은 토큰화 자산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(legacy) **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의 동기화(synchronisation) 결제 방식**을 '2028년 실사용' 목표로 시범 운영 중



※ 동기화 결제: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과 외부의 DLT 원장 등 자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한 뒤 **자산의 이전과 대금의 결제**가 상호 조건부로 동시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결제 기술을 의미

— 런던증권거래소 등 18개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토큰화 증권 결제 등을 시험 중

— 민간 토큰화 자산 플랫폼들이 서로 다른 기술과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분절화된 형태로 발전하더라도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

○ 또한 영란은행은 토큰화 자산 결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및 규제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7년 중 발표할 예정

○ 이 밖에도 영란은행은 **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**과 국가별로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**공동의 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**에서 발행, 운영하는 프로젝트(Project Agorá)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

□ **(제2세션) "글로벌 국가간 지급 개선 동향과 시사점"**을 주제로 넥서스 글로벌 페이먼츠(NGP)의 앤드류 맥코맥(Andrew McCormack) 대표가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 개선을 목표로 아세안 지역에서 추진 중인 넥서스(Nexus) 프로젝트의 경험에 대해 발표

※ 2020년 G20에서 '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로드맵*'을 마련한 이후, BIS 싱가포르 혁신허브와 아세안 국가 중앙은행들은 각국의 **신속지급시스템을 공통 플랫폼(Nexus Platform)에 연결**하는 Nexus 프로젝트를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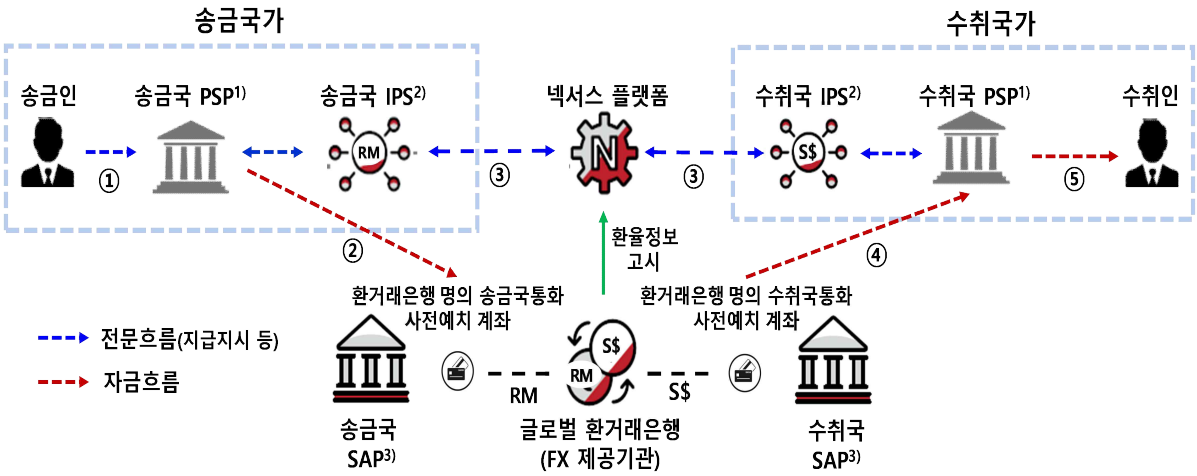
*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①수수료 절감, ②처리속도 개선, ③접근성 확대, ④수수료·환율 등 지급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

○ 국가간 지급서비스는 국가별 규제요건, 외환시장 여건, 데이터 양식의 차이, 지급인프라 운영시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속도와 효율성이 저해

○ Nexus 프로젝트는 **각국에서 운영 중인 신속지급시스템을 직접 단일 플랫폼에 연계**한 후 공통의 기술표준과 운영규칙을 적용하여, 각국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운영시간 차이를 극복하고자 함

ㅇ 현재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, 태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, NGP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 중

넥서스 플랫폼 송금구조



주: 1) PSP: 지급서비스 제공기관(Payment Service Provider)으로 송금 및 수취 은행
2) IPS: 신속지급시스템(Instant Payment System)
3) SAP: 결제계좌 제공기관(Settlement Account Provider)으로 결제대행은행

□ (**제3세션**) **"소액지급시스템의 혁신과 미래 과제"**를 주제로 브라질중앙은행의 조제 비센치 마토스 산타나(José Vicente Mattos Santana) 팀장이 브라질의 **통합 신속지급시스템**인 픽스(Pix)의 도입 및 성공 경험을 발표

ㅇ 2020년 11월 브라질중앙은행은 **연중무휴(24/7) 실시간 송금 및 RTGS 기반의 소액지급서비스***를 제공하는 신속지급시스템(Pix)을 도입하였으며, Pix는 현재 **브라질의 대표적인 지급수단**으로 자리매김

* 고객 앞 자금 지급과 은행 간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여 신용리스크를 해소

— 우리나라 전자금융공동망(인터넷뱅킹망)의 실시간 자금이체 기능에 더해 **온·오프라인에서 통합 상거래 대금지급 서비스***도 함께 지원

* 소비자는 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접속

— 브라질 성인의 95% 이상이 Pix를 이용하며, 이용 빈도에서도 신용카드 등을 제치고 브라질 **전체 소액지급 건수의 56%**를 차지('25 기준)

○ **(PIX의 성공요인)** 브라질중앙은행은 Pix의 성공 요인으로 크게 다음 4가지를 꼽고 있음

① 민간 지급서비스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및 핀테크 등 **전체 지급서비스 기관의 참여**를 유도함으로써 **규모의 경제 달성**

② 이를 통해 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보다 **저렴한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**

③ 수취인이 송금인과 동일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**간편지급서비스**의 제공

④ **소비자 이용요금 무료 정책** 등

○ 브라질중앙은행은 최근 늘어나는 금융사기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거래한도 설정, 피해금 반환제도 및 금융기관 규제 강화를 추진

○ 한편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브라질 Pix 시스템과 유럽중앙은행의 신속지급시스템인 TIPS 시스템 간의 직접 연계를 추진 검토 중이라고 발표(성사될 경우 브라질과 유로지역 간 신속 송금이 가능)

<별첨>

2026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프로그램

□ 주제 : 「디지털 금융 시대의 지급결제인프라 혁신과 정책과제」

□ 일시 : 2026년 11월 11일(수) 14:00 ~ 17:40

□ 방식 : 발표자 및 토론자가 대면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*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

* https://www.youtube.com/theBankofKoreakr

세부 일정※

시간	주제	발표자 및 토론자	
(14:00 ~ 14:05)	**개회사**	장정수 부총재보	
제1세션 (14:05 ~ 15:05)	**자산토큰화에 대응한 결제서비스의 미래**	발표	Andrei Pustelnikov 팀장(영란은행)
		좌장	이정두 디지털금융연구실장(한국금융연구원)
		토론자	장보성 거시금융실장(자본시장연구원)
			류재민 디지털화폐분석팀장(한국은행)
(15:05 ~ 15:20)	휴게시간		
제2세션 (15:20 ~ 16:20)	**글로벌 국가간 지급 개선 동향과 시사점**	발표자	Andrew McCormack(NGP CEO)
		좌장	박기영 교수(연세대학교 경제학부)(前 금통위원)
		토론자	고영미 교수(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)
			최 철 Web3금융사업본부장(신한은행)
(16:20 ~ 16:35)	휴게시간		
제3세션 (16:35 ~ 17:40)	**소액지급시스템의 혁신과 미래 과제**	발표자	José Vicente Mattos Santana 팀장 (브라질중앙은행)
		좌장	서정호 선임연구위원(한국금융연구원)
		토론자	현정환 교수(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)
			김동현 디지털금융연구팀장(금융결제원)
			고경철 결제정책팀장(한국은행)
(17:40 ~ 17:45)	**폐회**		

※ 한국어 ·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